

임상치과위생사의 성격유형과 직업소명에 관한 연구

조미숙 · 천세희¹ · 김창숙²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 ²울산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sense of vocation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Mi-Suk Cho · Sae Hee Cheon¹ · Chang-Suk Kim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 ¹Departments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Ulsan college

Received : 27 July, 2014

Revised : 2 September, 2014

Accepted : 7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Chang-Suk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Ulsan College, 101, Bongsu-ro

Dong-gu, Ulsan, 682-715, Korea.

Tel : +82-52-230-0793

Fax : +82-52-230-0790

E-mail : cskim@uc.ac.kr

ABSTRACT

Objectives :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sense of vocation of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Methods** :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221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the City of Changwon(unified), Busan · Gyeongsangnam-do.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19.0 program.**Result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nd a sense of vocation was higher for the dental hygienists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ttainment, higher monthly salary, higher job satisfaction level, extroverted personality,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a low neurotic group($p < 0.001$).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results among job satisfaction, personality type and the sense of vocation, a sense of vocation and job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hile the sense of vocation and neurotic tendency have a negative correlation($p < 0.01$). The results of logistic-regression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nse of vocation are as follows: education attainment($p < 0.001$), salary($p < 0.05$), extroversion($p < 0.001$) and neurotic tendency($p < 0.05$).**Conclusions** : Nature of consciousness, depending on the type of professional vocation was to determine the difference.**Key Words** : eysenck personality type, sense of vocation, work ethic**색인** : 아이젠크 성격유형, 직업소명, 직업의식

서론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¹⁾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직장인의 행복 증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 직업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소명(calling)

이란 원래 종교적 개념으로서 신의 부름을 받은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일반화되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여 그것에 헌신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발전했다²⁾. 이에 Dick과 Duffy³⁾와 박과 유⁴⁾는 소명은 스스로 자신의 일에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헌신이 가능하도록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라고 정의하였고, Clase와 Ruiz Quintanilla⁵⁾는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재정적인 보상에 관계없이 직업만족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반면에 직업스트레스는 매우 낮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성격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특징으로 감정, 사고 및 행동양식을 포함하고 있다⁶⁾. 인간의 성격에 대한 관심은 인간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⁷⁾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는 결정체이다⁸⁾. 선행연구의 결과로 Pervin⁹⁾은 환경과 개인의 성격이 잘 부합될수록 중업원들의 수행이 높고 조직에 더 만족하며 스트레스도 적게 느낄 것이라고 하였고, 유¹⁰⁾는 조직성격과 개인성격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조직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조직에 대한 몰입과 만족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직 의도는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민들의 치과의료 지식의 향상과 치과의료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도 점점 세분화되어가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¹¹⁾. 이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구강병 예방을 위한 업무뿐만 아니라 병원관리업무와 환자관리 등 구강진료기관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²⁾. 치과위생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이므로 어느 직업보다 높은 직업윤리와 생명윤리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의 확립이 중요하다¹³⁾. 이에 치과위생사는 직무관련 지식이나 기술의 연마와 함께¹⁴⁾ 소명감과 자신감,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¹⁵⁾. 현재까지 여러 선행연구들^{2,11-15)}에서 치과위생사와 직업성,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 대부분은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또는 직업기대에 관한 변수들을 주로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성격유형과 직업소명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부산·경상남도 통합 창원시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된 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29부를 제외하고 최종 22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일반적인 특성 5문항, 근무만족에 관한 1문항, 성격유형은 하위개념인 외향성요인에 관한 18문항과 신경증적경향성에 관한 26문항, 직업적 소명의식에 관한 12문항 총 6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별 세부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2.1. 성격유형 측정도구

성격유형은 이¹⁶⁾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Eysenck와 Eysenck¹⁷⁾의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번역하여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성인용”으로 재편성한 문항 가운데 외향성요인과 신경증적경향성에 관한 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1947년부터 시작해서 30여년의 연구과정을 거쳐 제작되었고 현재 25개국 등에서 널리 표준화되어 활용되고 있다⁷⁾.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및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사용하였다. 외향성요인에서 외향적과 내향적의 성격구분은 외향성요인에 관한 18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중앙값을 구하고 중앙값 이상의 점수를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로, 중앙값 이하의 점수를 내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로 구분하였다. 신경증적경향성 또한 외향성요인의 분류와 동일하게 26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중앙값을 기준으로 저 신경증군과 고 신경증군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외향성요인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0.835이고, 신경증적경향성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27이었다.

2.2. 직업적 소명의식

Hall¹⁸⁾의 개발한 설문지를 이와 한¹³⁾의 치과위생사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를 사용하였고 성격유형과 동일하게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적 소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적 소명의식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0.803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소명의식의 관련성은 t-test와 일변량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성격유형과 근무만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하였고, 근무만족, 성격유형과 직업적 소명의식의 상관성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Category	N	%
Gender	Female	216	97.7
	Male	5	2.3
Education attainment	College	139	62.9
	University	58	26.2
	Graduate school	24	10.9
Religion	Christianity	33	14.9
	Catholic	13	5.9
	Buddhism	46	20.8
Marital status	No religion	129	58.4
	Married	47	21.3
	Single	172	77.8
Monthly salary (Korean won)	Divorced	2	1.0
	Less than 150million	72	32.6
	150 million to less than 200million	86	38.9
	200million to less than 250million	49	22.2
	250million to less than 300million	11	5.0
Job satisfaction	300million or more	3	1.4
	Very dissatisfied	3	1.4
	Unsatisfied	28	12.7
	Neutral	122	55.2
	Satisfied	59	26.7
Extraversion	Very satisfied	9	4.1
	Introverted	70	31.7
Neurotic tendency	Extrovert	151	68.3
	Low neurotic group	90	40.7
Total	High neurotic group	131	59.3
		221	100.0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으며,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업적 소명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자 216명(97.7%), 남자 5명(2.3%), 학력은 전문대학 139명(62.9%), 대학 58명(26.2%), 대학원 24명(10.9%), 종교는 무교 129명(58.4%), 불교 46명(20.8%), 기독교 33명(14.9%), 천주교 13명(5.9%), 결혼여부는 미혼 172명(77.8%),

Table 2.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nse of vocation of the study population and personality type

	Category	Sense of vocation Mean±SD	T or F	p-value
Gender	Female	3.06±0.63	.573	.879
	Male	3.10±0.87		
Education attainment	College	2.92±0.53 ^a	27.699	.000 ^{****}
	University	3.05±0.65 ^a		
	Graduate school	3.86±0.63 ^b		
Religion	Christianity	3.07±0.74	.351	.788
	Catholic	3.01±0.50		
	Buddhism	3.14±0.55		
Marital status	No religion	3.03±0.66	1.399	.249
	Married	3.17±0.87		
	Single	3.03±0.56		
Monthly salary (Korean won)	Divorced	2.58±0.71	7.403	.000 ^{****}
	Less than 150million	2.89±0.63 ^a		
	150 million to less than 200million	3.09±0.46 ^a		
	200million to less than 250million	3.01±0.73 ^a		
	250million to less than 300million	3.79±0.83 ^b		
Job satisfaction	300million or more	4.03±0.70 ^b	10.192	.000 ^{****}
	Very dissatisfied	2.28±0.13 ^a		
	Unsatisfied	2.70±0.50 ^{ab}		
	Neutral	2.98±0.61 ^{bc}		
Extraversion	Satisfied	3.43±0.61 ^{bc}	1.364	.000 ^{****}
	Very satisfied	3.07±0.57 ^c		
	Introverted	2.79±0.52		
Neurotic tendency	Extrovert	3.18±0.66	.004	.000 ^{****}
	Low neurotic group	3.32±0.61		
	High neurotic group	2.88±0.60		

****p<0.001 ^{a,b,c}Duncan multiple range test

기혼 47명(21.3%), 월 급여는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6명(38.9%), 150만 원 미만 72명(32.6%),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49명(22.2%), 근무만족에서 보통 122명(55.2%), 만족 59명(26.7%), 불만족 28명(12.7%), 성격유형은 외향성요인은 외향적 151명(68.3%), 내향적 70명(31.7%), 신경증적경향성은 고 신경증군 131명(59.3%), 저 신경증군 90명(40.7%)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job satisfaction

Category		Job satisfaction Mean ±SD	p-value
Extraversion	Introverted	2.89±0.69	.000***
	Extrovert	3.34±0.75	
Neurotic tendency	Low neurotic group	3.36±0.66	.009**
	High neurotic group	3.08±0.80	

p<0.01, *p<0.001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력', '월 급여', '근무만족', '외향성' 및 '신경증적경향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즉 학력이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았고, 월 급여와 근무만족이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유형에서는 외향적인 대상자와 저 신경증군 대상자에서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성격유형과 근무만족의 관련성

성격유형과 근무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외향성 요인(p<0.001)과 신경증적경향성(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와 저 신경증군의 대상자에서 근무만족이 높았다(Table 3).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personality type, sense of vocation

	Job satisfaction	Extraversion	Neurotic tendency	Sense of vocation
Job satisfaction	-			
Extraversion	.278**	-		
Neurotic tendency	-.176**	-.109	-	
Sense of vocation	.345**	.281**	-.340**	-

**p<0.01

4. 근무만족, 성격유형, 직업적 소명의식의 상관관계 분석

근무만족, 성격유형과 직업적 소명의식에 관한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소명의식과 근무만족의 상관관계는 0.345로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소명의식과 신경증적경향성은 -0.340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5.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p<0.001), 월 급여(p<0.05), 외향성(p<0.001) 및 신경증적경향성(p<0.05)이 유

Table 5. Logistic-regression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nse of vocation

Classification	OR(95% CI)	VIF	p-value
Education attainment(college: reference)			
University	0.143 (0.089, 0.099)	1.057	.110
Graduate school	0.809 (0.143, 0.394)	1.366	.000***
Monthly salary (less than 150million: reference)			
150 million to less than 200million	0.172 (0.092, 0.131)	1.387	.064
200million to less than 250million	0.041 (0.121, 0.026)	1.721	.736
250million to less than 300million	0.550 (0.236, 0.187)	1.814	.021*
300million or more	0.779 (0.368, 0.141)	1.241	.035*
Job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reference)			
Unsatisfied	0.127 (0.200, 0.088)	6.502	.527
Neutral	-0.123 (0.190, -0.096)	7.383	.516
Satisfied	-0.288 (0.216, -0.150)	4.264	.183
Very satisfied	-0.637 (0.347, -0.115)	1.341	.068
Extraversion(Introverted: reference)			
Neurotic tendency (Low neurotic group: reference)	0.218 (0.101, 0.142)	1.075	.032*
Adjusted R2 =0.351 F=10.909 Durbin-Watson=0.682 p-value < 0.001			

*p<0.05, ***p<0.001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Table 5).

총괄 및 고안

전문직이란 일반적으로 전문가, 자율, 권위, 책임감의 특징을 가지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 즉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들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을 말한다¹⁹⁾.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의 본질과 철학을 중시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¹⁴⁾. 이에 본 연구는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성격유형과 소명의식 두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 등²⁰⁾의 연구에서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대상자에서 전문 직업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학력이 높다는 의미는 연령과 경력 또한 높다는 맥락 하에, 조직 내의 역할이 관리자급일 것으로 여겨지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권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에 직업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 전문 직업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월 급여는 150만 원 미만인 대상자에서 2.89점으로 소명의식이 가장 낮았고 300만 원 이상인 대상자에서 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와 김²¹⁾의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월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의 대상자가 이직의도가 가장 높고 보수의 만족도와 자율성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0만 원 이상의 대상자에서 이직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보수와 자율성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와 한¹³⁾의 연구에서도 경력과 연봉이 높은 대상자는 윤리적인 성향과 전문 직업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봉이 2,000만 원 미만의 대상자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여 급여는 직업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직업소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무만족이 높은 대상자에서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장과 이²²⁾는 성인 직장인의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의 직업이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경우 직업만족도의 수준이 높아져 결국에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Dick과 Duffy³⁾ 또한 소명의식은 일의 의미를 통해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 소명의식이 높아서 근무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로 근무만족이 높아서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는 단면조사 연구의 한계로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추후 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성격유형의 하위개념인 외향성의 분류에서 내향적 2.79점에 비해 외향적인 대상자가 3.18점으로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박²³⁾은 사회형으로 분류되는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고 협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상호 작용에 능숙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여 대인관계에서 능숙하고 원만한 외향적인 대상자에서 직업소명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신경증적경향성에서 저 신경증군이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만족, 성격유형과 직업적 소명의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업적 소명의식과 근무만족은 0.345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업적 소명의식과 신경증적 경향성은 -0.340으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직업적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근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 신경증군에서 직업적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력과 월 급여가 높을수록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와 저 신경증 군의 대상자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격유형에 관한 지금까지의 보고를 참고하면²⁴⁾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조직 내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및 적극성을 보여 의사와 환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요구하는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지고, 내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는 조용하고 꼼꼼하여 자기내부로 에너지를 집중시켜 주의 깊게 일을 처리하며 항상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순차적인 반응을 선호하므로 환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두는 세밀한 영역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떤 성격의 대상자가 조직 생활에 잘 맞고 안 맞고의 양면적인 결론보다는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배려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내향적인 성격의 대상자와 고 신경증군 대상자에 대한 근무만족과 직업적 소명의식의 고취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향후 대규모 조사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조직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들을 편의 추출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고, 단면조사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경상남도 통합 창원시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21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월 급여가 많을수록, 근무만족이 높을수록, 성격유형에서 외향적일수록 저 신경증군의 대상자에서 높게 나타났다($p < 0.001$).
2. 근무만족,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소명의식과 근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소명의식과 신경증적경향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 < 0.01$).
3.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력($p < 0.001$), 급여($p < 0.05$), 외향성요인($p < 0.001$) 및 신경증적경향성($p < 0.05$)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성격유형에 따라 직업적 소명의식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s

1.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public of Korea workers to tell the happiness, Seoul: CEO Information; 2013: 898.
2. Park JR, Kim H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alling and self-esteem upon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012; 2: 73-9.
3. Dick BJ, Duffy RD.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J Couns Psychol* 2009; 37: 424-50.
4. Park JH, You SK.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work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09; 13: 543-60.
5. Clase R, Ruiz Quintanilla SA. Initial career and work meanings in seven european countries, *Career Dev Q* 1994; 42: 337-52.
6. You HK, Kim MY, Jung HK. Employees' big personality,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customer performance in food service corporations, *J Hotel Adm* 2007; 16: 201-19.
7. Se DS. Correlation studies for mbti and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unsei, 1999.
8. Ahn YS, Han JH, Kim K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personality types on bio ethical perception, *J Dent Hyg Sci* 2013; 13: 347-53.
9. Pervin LA.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individual-environment fit, *Psychol Bull* 1968; 69: 56-68.
10. Yoo TY. Scale development for organizational personality type indicator(OPTI),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99; 12: 113-9.
11. Kim KS, Yu MS.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 practice performance as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04; 4: 111-5.
12. Kim YS, Shin MW.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 Korean Soc Dent Hyg* 2008; 8: 161-75.
13. Lee SJ, Han KS. The ethical propensity, professional -ism and ethical job behavi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2; 36: 238-48.
14. Lee S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 535-42.
15. Hwang MY, Oh HY, Won BY. A study on dental hygienists' job expecta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 1138-47.
16. Lee HS.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Seoul: Hakjisa; 2004: 53-68.
17. Eysenck HJ, Eysenck SBG. The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Hodder & Stoughton, 1975.
18. Hall RH.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 Sociol Rev* 1968; 33: 92-104.
19. Hyun JW. A study on empowerment among operating room nurse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unsei, 2002.
20. Kim CH, Lee HO, Lee SM. Clinical dental hygienist's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J Dent Hyg Sci* 2011; 11: 345-52.
21. Lee BH, Kim JS.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dental hygienists, *J Korea Contents Assoc* 2010; 10: 217-27.
22. Jang JY, Lee J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meaning, living a calling, life meaning,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4; 15: 259-78.
23. Lee JS, Park JJ.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and mbti personality typ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2; 16: 161-79.
24. Moon YK. The study on the relation of personal personality type and occupational preference, *Kyungbok Memories* 2004; 8: 383-96.